

셔츠 디테일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

- 미적 특성을 중심으로 -

한성현·김경아*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상디자인전공 석사
수원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조교수*

요약

본 연구는 이너웨어에 국한됨으로써 서브 아이템(sub-item)으로 분류되는 셔츠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의복 제작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셔츠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셔츠의 구성과 디테일 요소에 대해 알아본 후 최근의 셔츠 디자인 경향을 분석하여 셔츠 디자인 유형의 카테고리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최근 컬렉션에 나타난 셔츠 디자인의 특성은 셔츠의 구조를 바탕으로 한 조형적 특성과 심미성을 바탕으로 한 미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조형적 특성에 있어서는 실루엣, 길이, 소재, 색상, 디테일 등에 따라 유행 경향을 정리하였고 미적 특성에 있어서는 형태의 과장성과 체형의 재구성, 다기능성 요소로 분류하여 셔츠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디자인 도출을 위한 첫 카테고리인 형태적 과장성을 위해서는 의복 구성의 요소나 소재를 활용하여 겹침으로써 과장적 실루엣을 제작하였다. 두 번째 카테고리인 체형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건갑골이나 승모근과 같은 인체 구성요소나 의복 구성요소를 비틀고 강조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실루엣을 선보였다. 또한 세 번째 카테고리인 다기능성 요소는 복합적 디자인을 위해서 탈착연결을 응용하거나 다른 아이템으로의 변형과 같은 다양한 셔츠 변형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함으로써 멀티 스타일링이 가능한 셔츠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각 디자인 카테고리에 따른 셔츠 제작을 위해서는 조형적 특성에서 도출된 구성요소를 디자인에 맞게 첨가하도록 함으로써 최근의 다양한 셔츠 디자인 유행 요소를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제작된 셔츠는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에 실용성을 더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의상으로써 발전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는 새로운 방향성의 디자인을 모색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 셔츠, 셔츠의 구성요소, 셔츠의 조형적 특성, 셔츠의 미적 특성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교신저자: 김경아, daisyd@swc.ac.kr

접수일: 2017년 2월 2일, 수정논문접수일: 2017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 2017년 3월 8일

I. 서론

최근의 패션은 현대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다원화된 현대 사회로 변화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성(性) 경계선이 없어지고, 개인의 개성과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유로운 현대 패션의 방향성은 외적 형태뿐만 아니라 구성적으로도 보다 입체적인 형태를 내포한 유니크하고 아방가르드한 디자인 형태로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Choi, 2015).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패션디자인의 개발은 외투나 드레스와 같이 실루엣을 중심으로 하는 외적 아이템에 국한됨으로써(Huh, 2010; Lee, 2003) 이너웨어(inner-wear)에 대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 중 셔츠는 지속적인 효용성이 요구되는 아이템이며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애용되고 있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필요도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주5일제 근무의 시행은 개인의 감성중심 생활의 확대를 야기하였으며 캐주얼한 걸음으로의 셔츠의 역할 역시 커지게 되어 보다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으로서의 필요도도 증가하고 있다(Lim, 2009).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최근 이너웨어에 대한 개발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셔츠에 관한 연구는 유행에 따른 색상과 무늬(Kim, 2013; Kong & Kwon, 2013), 소재(Hong, 2004)나 미학적 개념(Lee, 2011; Han, 2010; Kang, 2009) 등에 국한될 뿐 셔츠의 디테일이나 형태 구조에 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셔츠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대한 정리를 바탕으로 최근 셔츠 디자인에 등장하는 미적 특성을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의 트렌드에 부합하면서도 조형적 구조를 가진 셔츠 디자인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한 디

자인 제안 및 제작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셔츠의 개념, 변천과정, 셔츠의 종류 및 구조에 대해 정리하였다. 둘째, 최근의 셔츠 디자인 유행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컬렉션에 등장하는 셔츠 디자인을 구성요소와 디테일에 따라 정리함으로써 디자인 경향을 분석하였고 셔츠가 갖는 미적인 특성을 세 가지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유형화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작품을 전개해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디자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셔츠 디자인의 미적 특성 세 그룹에 맞게 각 남녀 한 벌씩 제작함으로써 총 여섯 벌의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셔츠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서는 선행연구 및 관련 서적, 패션 간행물, 신문기사, 인터넷 관련 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셔츠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2011년 S/S 시즌부터 2015년 F/W까지의 세계 주요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셔츠 디자인으로 한정하여 정리하였다. 셔츠 디자인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주요 패션 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컬렉션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II. 셔츠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셔츠의 개념 및 변천과정

셔츠는 고대 오리엔트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아시리아(Assyria) 지방의 몸에 꼭 끼는 모직 셔츠를 오늘날의 셔츠의 전형으로 본다(Yardwood, 1986). 고대의 셔츠는 슈미즈(chemise)라는 명칭으로 여러 문헌에 등장하며 고대로부터 남녀가 착용해 온 속옷의 총칭으로 의복 착용 시 제일 안에 입는 머리를 끼워 넣는 직선형 실루엣의 관두의 형태 의복을 의미한다(Jeong, 1989). 16세기까지 지속되었던 간단한 슈미즈의 형태는 르네상스 시대



Figure 1. 『The Emrine Portrait of Queen Elizabeth I』, 니콜라스 힐리어드, 1585.

From Kim and Ahn. (2009). p. 168.



Figure 2. 『The Portrait of Sir Walter Raleigh』, 니콜라스 힐리어드, 1585.

From Kim and Ahn. (2009). p. 168.



Figure 3. 『Gustav II Adolf』, 제이콥 엘파스, 1630.

From Jeong. (1989). p. 331.



Figure 4. 『Andries Van Der Horn』, 프란스 할스, 1638.

From Jeong. (1989). p. 341.

까지 유지되다가 1500년경부터 1550년경 동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셔츠의 고전적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Lee, 2007). 16세기 후반에 와서는 네크라인과 커프스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셔츠의 형태가 더욱 사치스러워졌으며 칼라를 보다 크게 보이게 장식한 러프칼라(ruff collar)와 같이 주름장식을 목 전체에 감는 등 보다 화려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Figure 1), (Figure 2).

이후 근대과학과 근대철학이 형성되는 17세기를 거치며 의복은 실용적이고 활동적이며 기능적인 복장으로 간소화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셔츠의 화려하던 러프와 메디치 칼라에도 영향을 미쳐 <Figure 3>과 같은 휘스크 칼라(whisk collar)나 <Figure 4>의 폴링칼라(falling collar)와 같이 함께 간소화되었다(Kim & Ahn, 2009). 그러나 17세기 중엽 이후 바로크풍의 유행이 도래하며(Lee, 2007) 소재나 실루엣은 간소하나 재질이나 장식이 호화롭고 늘어지는 넓은 칼라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근대화 시기인 19세기는 산업혁명 등으로 공장 과 직장에서의 생산 활동에 어울리는 기능성과 근대적인 의식을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복식이 요구되었다(Craik, 1993/2001). 그로인해 이 시기의 셔츠는 점차 단순해지고 1830년경에는 가슴부분의 프릴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후 셔츠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유행에 따라 독립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

였고 점차 간소해지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Lee, 2008). 셔츠의 현대적 형태는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성립되었는데 1871년 ‘Brown, Davis & Co.’에서 제안한 가슴 아래로 버튼이 달려 내려오는 현대적 형태의 셔츠가 등장하면서(Roetzel, 1999) 기존의 위아래로 입고 벗는 형태의 셔츠에서 탈피하게 되었다.

20세기에는 개성과 디자인의 발달로 셔츠에도 자유로운 디자인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Kim, 1999). 또한 의복에 있어서 독창성이 나타남으로써 전위적인 셔츠의 직물 패턴이 등장하게 되고 독창성과 창조성이 의복의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증가하였으며(Mendes, 1999/2003) 성에 대한 경계선이 모호해짐으로써 개성의 표출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다양한 셔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Kim & Lee, 2011).

2. 셔츠의 종류와 구조

셔츠의 종류는 형태에 따라 와이셔츠형, 남방형, 티셔츠형 등이 있고, 기능에 따라서는 정장용, 캐주얼용, 스포츠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Oh, 2000). 와이셔츠형은 예장용 의복이나 포멀한 슈트 안에 착용하는 셔츠로써 장식적인 요소가 없이 칼라, 커프스, 앞 버튼 여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장용으로 구분된다. 와이셔츠의 종류에는 비즈니스 슈트



Figure 5. 포멀셔츠.
From Lee. (2007). p. 47.



Figure 6. 디키셔츠.
From Yarwood. (1986). p. 77.



Figure 7. 캐주얼셔츠.
From Yarwood. (1986). p. 79.



Figure 8. 티셔츠.
From Lee. (2007). p. 48.

안에 함께 입는 드레스 셔츠(dress shirt), <Figure 5>와 같이 플리즈, 턱, 리플 등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 포멀셔츠(formal shirt)(Lee, 2004), 세미셔츠(semi shirt), <Figure 6>과 같이 앞판만 있고 등 부분이 없는 디키셔츠(dickey shirt) 등이 있다.

<Figure 7>과 같은 캐주얼셔츠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입는 와이셔츠의 변형으로 종래의 실용성과 기능적인 것을 지향하며, 다양한 목적으로 입는 셔츠로 캐주얼용에 속한다(Nam & Lee, 1996). 티셔츠는 면이나 폴리에스테르 혼방의 기계로 짠 니트지로 만든 반팔 혹은 긴팔의 셔츠로, 소매가 몸판에 직각으로부터 있어서 소매를 펼치면 T자형이 되므로 티셔츠라고 하였다(Shin, 2003). 레저나 스포츠뿐만 아니라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활동성이 요구되어지는 스타일의 셔츠로 <Figure 8>과 같이 스포츠형에 속하며 면이나 저지소재를 사용한 T자형의 티셔츠(T-shirt), 짧은 소매와 2~3개의 단추가 달려 여미거나 풀 수 있게 되어 있는 폴로 셔츠(polo shirt) 등이 있다(Kong, 2004).

셔츠의 구조는 몸판(bodice), 칼라(collar), 소매(sleeve)와 커프스(cuffs), 프론트 플라켓(front Placket), 요크(yoke), 포켓(pocket), 밑단(shirts tail)으로 이루어진다. 몸판의 앞판에는 단추 구멍이 있는 셔츠의 앞여밈 부분인 플라켓 부분과 포켓으로 이루어져 있다(Kong & Kwon,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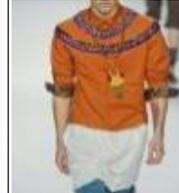
III. 2010년대 이후 컬렉션에 나타난 셔츠의 조형성과 미적 특성

1. 조형적 특성

최근 4년간의 컬렉션 분석을 통해 알아본 조형적 특성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오버사이즈를 추구하는 최근 경향에 따라 박시한 실루엣이 중심을 이루어 H형의 실루엣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Figure 9>, <Figure 10>, 실루엣을 절제하는 대신 다채로운 소재, 패치워크, 장식 디테일, 프린트 패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셔츠의 변화를 유도하였다(Figure 11). 또한 셔츠의 길이는 최근에는 극도로 짧아지는 형태를 보이거나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형태를 보임으로써 셔츠의 길이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셔츠의 길이는 실루엣을 더욱 돋보이게 하거나 부각시켜줌으로써 실루엣의 형태를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다(Figure 12), (Figure 13).

셔츠의 소재는 오늘날의 셔츠가 겉옷으로의 역할로까지 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면소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얇고 하늘거리는 소재, 시스루 소재, 팡택 소재, 무늬가 있는 직물, 레이스, 가죽, 장식 등 다양한 무늬와 재질감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주는 셔츠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면직물에서는 무늬가 있는 직물과 민무늬 면직물이 결합함으로써 더욱 구조적인 느낌으로 나타났다(Figure 14), (Figure 15). 또한 시폰, 오간

Table 1. 2010년대 이후 컬렉션에 나타난 셔츠의 조형적 특성.

조형적 특성 유형	컬렉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예시					
실루엣과 길이						
	<p>Figure 9. 살라얀 2013 S/S. From SPRING 2013 READY-TO-WEAR Chalayan. (2013a). http://www.vogue.com</p>	<p>Figure 10. 빅터 앤 롤프 2011 S/S. From SPRING 2011 READY-TO-WEAR Victor&Rolf. (2011a). http://www.vogue.com</p>	<p>Figure 11. 빅터 앤 롤프 2011 S/S. From SPRING 2011 READY-TO-WEAR Victor&Rolf. (2011b). http://www.vogue.com</p>	<p>Figure 12. 프랭키 모렐로 2012 F/W. From Frankie Morello Autumn (Fall) / Winter 2012 men's 1 2° parte. (2012). http://coolechicstyletradessitalian.blogspot.kr</p>	<p>Figure 13. 살라얀 2013 S/S. From SPRING 2013 READY-TO-WEAR Chalayan. (2013b). http://www.vogue.com</p>	
	H형 실루엣	A형 실루엣	Y형 실루엣	길이		
소재						
	<p>Figure 14. 사카이 2014 S/S. From SPRING 2014 READY-TO-WEAR Sacai. (2014). http://www.vogue.com</p>	<p>Figure 15. 안토니오 마라스 2014 F/W. From Milan Fashion Week: Antonio Marras A/W 2014. (2014). http://uomo-moderano.com</p>	<p>Figure 16. 발렌시아가 2011 S/S. From SPRING 2011 READY-TO-WEAR Balenciaga. (2011). http://www.vogue.com</p>	<p>Figure 17. 드리스 반 노트 2012 F/W. From FALL 2012 READY-TO-WEAR Dries van Noten. (2012). http://www.vogue.com</p>	<p>Figure 18. 디올 옴므 2012 S/S. From SPRING 2012 READY-TO-WEAR Dior Homme. (2012). http://www.vogue.com</p>	<p>Figure 19. 니콜라스 페트루 2011 F/W. From Mantha. (2011). http://www.trendhunter.com</p>
	면 직물		쉬폰, 실크 및 레이스 직물		가죽 및 두꺼운 직물	
색상						
	<p>Figure 20. 닐 바렛 2011 S/S. From SPRING 2011 MENSWEAR Neil Barret. (2011). http://www.vogue.com</p>	<p>Figure 21. 조난단 선더스 2012 S/S. From SPRING 2012 MENSWEAR Jonathan Saunders. (2012). http://www.vogue.com</p>	<p>Figure 22. 코스튬 내셔널 2014 S/S. From SPRING 2014 MENSWEAR Costume National. (2014). http://www.vogue.com</p>	<p>Figure 23. 다이안 폰 피르스텐버그 2011 S/S. From SPRING 2011 READY-TO-WEAR Diane von Furstenberg. (2011). http://www.vogue.com</p>	<p>Figure 24. 리드 크라코프 2012 S/S. From SPRING 2012 READY-TO-WEAR Reed Krakoff. (2012). http://www.vogue.com</p>	<p>Figure 25. 3.1 펠립 림 2013 S/S. From SPRING 2013 READY-TO-WEAR 3.1. Philip Lim. (2013). http://www.vogue.com</p>
	무채색			유채색		

디테일							
	<p>Figure 26. 다니엘 알레산드리니 2011 F/W. From Stefano. (2011). http://www.sandfashionblog.com</p>	<p>Figure 27. 토즈 2015 F/W. From FALL 2014 READY-TO-WEAR Tod's. (2014). http://www.vogue.com</p>	<p>Figure 28. 펜디 2012 F/W. From FALL 2012 READY-TO-WEAR Fendi. (2012). http://www.vogue.com</p>	<p>Figure 29. 파머 하딩 2014 S/S. From 2014 Spring Ready-to-Wear London Palmer-Harding. (2014). http://wwd.com</p>	<p>Figure 30. 돌체 앤 가바나 2011 F/W. From FALL 2011 MENSWEAR Dolce & Gabbana. (2011). http://www.vogue.com</p>	<p>Figure 31. 셀린느 2011 S/S. From SPRING 2011 READY-TO-WEAR Celine. (2011). http://www.vogue.com</p>	<p>Figure 32. 알렉시스 마비유 2014 F/W. From FALL 2014 READY-TO-WEAR Alexis Mabile. (2014). http://www.vogue.com</p>
	칼라 변형		칼라 변형		플래킷 변형	커프스 변형	바디스 변형

자 직물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프린팅과 질감이 있는 소재를 결합하여 셔츠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Figure 16). 실크 및 레이스 직물은 의복의 디테일이나 포인트의 부분에만 사용되던 소재였으나 최근에는 의복의 전체에 들어감으로써 셔츠의 분위기를 새롭게 해줄 뿐 아니라 장식적인 요소를 더 부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Figure 17). 이렇듯 최근 셔츠의 소재 사용방법은 재질감이 다른 여러 소재를 결합하여 나타내고, 색상을 믹스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겉옷에만 사용되던 직물을 셔츠에 적용시켜 이너웨어의 셔츠를 겉옷으로의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Figure 18), (Figure 19).

색상에 있어서는 무채색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트렌드를 반영한 조형적인 디자인을 표현하는데 무채색이 면적 사이를 대비시킴으로써 시각적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Figure 20), (Figure 21), (Figure 22). 무채색 가운데는 화이트색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밝은 회색, 회색, 어두운 회색, 검정은 비슷한 수준으로 화이트색상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유채색의 사용도 높지 않은 빈도로 등장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채도가 높은 밝은 색으로 노랑이나 파랑, 파스

텔 톤이 주로 사용되었다(Figure 23), (Figure 24), (Figure 25).

또한 디테일의 변형 중 칼라의 형태에서는 셔츠의 칼라를 과감히 제거하고 터틀넥과의 디자인을 결합시켜 기능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로 디자인하거나(Figure 26), 칼라를 다른 부위와 결합시켜 과장함으로써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냈다(Figure 27). 소매의 형태에 있어서는 길이뿐 아니라, 실루엣의 변화도 다양토록 하는 디자인 변화를 나타냈다(Figure 29). 플래킷과 같은 디테일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본적인 소매에 또 다른 소매를 결합시켜 비대칭적인 형태의 변화를 만들거나(Figure 28), 소매의 봉제되는 부분을 해체시켜 소매 사이로 팔이 드러나 디자인이 등장하였다. <Figure 30>은 넥타이와 같은 모양을 결합함으로써 마치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는 듯 보이도록 하는 눈속임기법(trompe-l'œil)의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인 동시에 기능적인 요소를 가미하였다. 또한 앞중심의 플래킷이 오른쪽으로 언밸런스하게 이동되어 비대칭을 이루기도 하며 기존의 플래킷을 다른 부자재로 사용하여 착용하기에도 더욱 편안하게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커프스는 소매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형태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Table 2. 2010년대 이후 컬렉션에 나타난 셔츠의 미적 특성.

미적 특성 유형	과장적 요소	체형적 요소	다기능적 요소
컬렉션에 나타난 미적 특성 예시	  <p>Figure 33. 빅터 앤 룰프 2011 S/S. From SPRING 2011 READY-TO-WEAR Victor&Rolf. (2011c). http://www.vogue.com</p> <p>Figure 34. 빅터 앤 룰프 2011 S/S. From SPRING 2011 READY-TO-WEAR Victor&Rolf. (2011d). http://www.vogue.com</p>	  <p>Figure 35. 발렌시아가 2011 S/S. From FALL 2013 READY-TO-WEAR Balenciaga. (2013). http://www.vogue.com</p> <p>Figure 36. 발렌시아가 2014 F/W. From FALL 2014 READY-TO-WEAR Balenciaga. (2014). http://www.vogue.com</p>	  <p>Figure 37. 요지 야마모토 2014 S/S. From SPRING 2014 READY-TO-WEAR Yohji Yamamoto. (2014). http://www.vogue.com</p> <p>Figure 38. 살라안 2013 F/W. From FALL 2013 READY-TO-WEAR Chalayan. (2013). http://www.vogue.com</p>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커푸스의 크기가 극도로 커지거나, 단추로 여미는 부분을 잠그지 않은 채 착용하거나 소매와 함께 붙어 있어야 할 커푸스를 해체하여 일정부분만 봉제를 함으로써 커푸스 자체가 장식적인 요소로 나타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Figure 31). 뿐만 아니라 바디스(bodice) 디자인에 있어서는 편평한 프론트에 다양한 봉제기 법이나 트리밍, 개더, 프린트장식 등 여러 요소들을 모두 결합시켜 형태 변화를 나타냈고, 다른 부위나 디테일 요소들을 결합하여 프론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Figure 32).

2. 미적 특성

최근 4년간의 셔츠 디자인의 미적 특성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전통적 셔츠 디자인에 비해 디자인 요소를 바탕으로 둔 구성상의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인체의 형상을 디자이너의 주관에 따라 변형하거나 입체감으로 셔츠에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Kwon et al., 2015). 또한 셔츠의 형태를 실제의 인체보다 크게 확대하여 표현하거나 패턴이 들어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더욱 극대화시켜 다양한 과장된 형태를 나타내었다. 특히 셔츠의 디테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 변화를 주거나 다른 아이템과의 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한 디자인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셔츠의 디자인 요소를 중점에 둔 특성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과장적 요소, 체형적 요소, 다기능적 요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과장적 요소

셔츠 디자인의 과장은 선과 실루엣이 실제의 인체보다 눈에 띄게 확대되거나 지나치게 왜곡됨을 통해 특정 부위를 지나친 노출이나 과장, 왜곡 등을 적용한 형태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등장하였다(Lee, 2003). 셔츠 디자인의 과장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Figure 33>과 같이 공간적 겹침이나 길이의 연장 등의 표현 방법을 통해 과장적 요소가 보이는 것으로 소매와 커푸스, 칼라를 겹치거나

반복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Figure 34>는 셔츠의 프론트를 과장시켜 비대칭적으로 배치하고, 칼라의 반복을 통한 과장으로 셔츠의 디테일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형하였다.

2) 체형적 요소

체형은 골격을 중심으로 한 인체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Yoon, 2013), 현대 패션에서는 이러한 인체의 형상을 디자이너의 주관에 따라 강조, 변형, 왜곡 등으로 표현하여 시각적 흥미로움과 입체감으로 의복에 나타나기도 한다. 셔츠 디자인에 응용된 체형강조의 사례로는 <Figure 35>의 경우와 같이 셔츠의 윗부분을 굴신체형의 느낌이 되도록 상판을 입체적 패턴으로 더욱 부각시켜 강조하였다. <Figure 36>은 인체의 쇄골라인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시선이 의상의 쇄골에 머물게 함으로 쇄골을 강조하게 되는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3) 다기능적 요소

다기능 디자인은 본래의 착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지닌 디자인으로의 변형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Yoon, 2016), 패션에 있어서는 착용자의 착용방법에 따라 형태 변화를 주어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 할 수 있는 멀티 스타일링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였다(Bae, 2008). 이는 현대 셔츠 디자인에 있어 <Figure 37>과 같이 셔츠의 소매 위에 소매덮개를 기호나 환경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한 멀티 디자인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착용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 대처가 가능한 다기능성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형태로 등장하였다. 또한 <Figure 38>은 앞판을 여유 있게 디자인하고 비대칭적으로 지퍼를 달아서 착용자의

착장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IV. 디자인 개발

1.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

작품의 콘셉트는 조형성에 따라 정리한 셔츠 디자인의 세 가지 미적 특징인 과장적 요소, 체형적 요소, 다기능적 요소의 세 가지 특성으로 나누어 각 콘셉트 당 두 벌씩 총 6점의 셔츠를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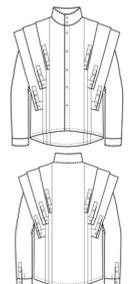
작품 제작을 위한 소재는 <Table 3>과 같이 아우터의 역할로써도 셔츠를 활용이 가능하도록 6점의 작품 모두 기본원단을 면 트윌 스판(twill span) 소재로 사용하였고, 작품의 콘셉트에 따른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디자인 콘셉트에 따라 정해진 소재를 믹스 앤 매치하여 표현하였다.

색상에 있어서는 배색감을 사용하였는데 베이직 컬러는 최근 유행 경향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된 무채색인 화이트(white)색상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앞 장에서 컬렉션을 분석한 결과 디자인 부위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기본 바탕에 무채색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을 응용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콘셉트에 따른 특성을 표현하는 색상으로는 그레이(grey), 퍼플(purple), 네이비(navy), 카키(khaki), 브라운(brown), 블랙(black), 차콜 그레이(charcoal grey), 라이트 그레이(light grey) 등을 배색색상으로 설정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화이트 색상에 입체적 형태를 두드러지게 대조되는 색상을 사용하기 위해 각 디자인 카테고리의 형태

Table 3. 작품 제작용 기본 원단 사양.

직물명	혼용률	두께	무게	조직
면 트윌 스판	면 100%	40수	120g	능직

Table 4. 과장적 요소를 활용한 디자인 제안.

작품구성	표현방법	소재	색상	도식화	작품
작품1. 과장적 요소1- 입체절개와 소매 강조형 셔츠	가슴과 등을 인조가죽을 사용하여 입체적으로 부각시킴, 소매는 먼 분할을 통해 비대칭적 형태를 나타내고 소재의 접침을 통한 과장표현	면 100% 40수 트윌, 인조 가죽	화이트, 메탈릭 브라운 컬러를 통해 입체적인 형태를 부각시킴		
작품2. 과장적 요소2- 어깨 강조형 셔츠	소매형태의 구조를 사용하여 어깨를 강조함으로 과장된 형태를 표현, 장식소매는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하여 중첩을 통한 과장적 실루엣 표현	면 100% 40수 트윌	화이트, 카키, 블랙의 색상을 통한 중첩효과로 어깨과장을 표현		

특성을 극대화하기 적절한 색상으로 구성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셔츠 디자인 유형화에 따른 작품 제작 공통 사항을 설정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였고 각 유형별로 전개한 디자인은 패션전문가 5인의 검증을 통해 최종 제작 디자인을 평가함으로써 디자인 개발에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작용 최종 디자인 작품 제작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착장이 가능한 유니섹스 스타일로 제작하여 디자인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2. 작품제작

첫 번째 디자인 카테고리인 과장적 요소의 셔츠 디자인은 칼라, 소매의 디테일을 여러 겹의 소재를 겹쳐서 사용함으로써 반복과 접침을 통한 과장된 형태를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기하학적인 선

과 먼 분할을 통해 비대칭적 구조의 실루엣을 만들어 과장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Table 4). 과장된 형태의 콘셉트를 위해서는 테크니컬한 가공을 더한 인조가죽을 사용하여 소재를 통해 입체적인 면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으며 40수 고밀도 평직소재를 여러 가지 색상으로 믹스 앤 매치함으로써 소재의 질감과 색상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디테일을 시각적으로 돋보일 수 있게 하였다.

두 번째 디자인 카테고리인 체형적 요소를 특징으로 한 디자인은 기존 셔츠에 나타나는 인체부위에 따른 체형요소를 변형하여 착장되는 위치를 구조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기존위치에 변형을 가져오는 표현방식을 통해 표현하였다. 이러한 콘셉트의 특징을 위해서는 소재의 질감이나 색상을 통해 작품의 포인트가 되는 디테일을 잘 살리고자 하였으며 특히 두께가 다른 인조가죽을 활용하여 더욱 입체감이 들 수 있도록 하였다(Table 5).

Table 5. 체형적 요소를 활용한 디자인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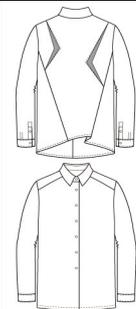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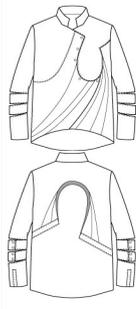
작품구성	표현방법	소재	색상	도식화	작품
<p>작품3. 체형적 요소1- 기하학 형태의 굴신체형 강조형 셔츠</p>	<p>등이 굽혀져 있는 인체의 실루엣을 패턴의 절개를 통해 기하학적인 형태의 디테일로 변화시켜 표현, 인체의 뒷모습을 앞판에 표현함으로써 인체의 극단적 변형을 통한 다양한 실루엣 의도함</p>	<p>면 100% 40수 트월, 인조가죽</p>	<p>화이트, 메탈릭 퍼플 색상으로 인체의 변형을 통한 실루엣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킴</p>		
<p>작품4. 체형적 요소2- 체형의 재구성을 통한 암홀라인 강조형 셔츠</p>	<p>패턴 구성상에서만 나타나는 암홀라인의 위치를 셔츠의 앞·뒤판으로 변경하여 표현, 소매의 커프스는 기존의 위치에서 변경하여 소매 팔꿈치에 여러 겹의 커프스로 나타냄으로 체형의 재구성을 통한 디자인으로 제안</p>	<p>면 100% 40수 트월</p>	<p>화이트, 네이비 블루 의 색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평면적 암홀라인을 강조함</p>		

Table 6. 다기능적 요소를 활용한 디자인 제안.

작품구성	표현방법	소재	색상	도식화	작품
<p>작품5. 다기능적 요소1- 숄더백으로 변형이 가능한 다기능성 셔츠</p>	<p>여러 가지 목적, 용도, 기능에 따라 숄더백으로 변형이 가능한 셔츠 디자인 제시</p>	<p>면 100% 40수 트월, 인조가죽</p>	<p>화이트, 바이올렛, 차콜 그레이의 색상을 통해 숄더백의 형태를 부각시킴</p>		
<p>작품6 다기능적 요소2- 셔츠와 케이프의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한 멀티 스타일 셔츠</p>	<p>착용자의 착용방법에 따라 칼라의 탈부착을 통해 셔츠 또는 케이프의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멀티 스타일링 디자인 제시</p>	<p>면 100% 40수 트월, 인조가죽</p>	<p>화이트, 슬레이트 그레이 색상을 통해 케이프의 구조적인 형태를 표현</p>		

세 번째 디자인 카테고리인 다기능적 요소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디자인 특징은 서즈라는 하나의 복식 아이템을 여러 가지 목적, 용도, 기능에 따라 변형이 가능한 복합적인 디자인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착용자의 착장방법에 따라 형태 변화를 주어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멀티 스타일링(multi-styling)이 가능한 디자인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다. 다기능적 요소의 콘셉트를 위한 소재로는 소재자체에 코팅이 더해져 과하지 않는 광택감을 갖추고 있는 인조가죽을 사용하여 디자인의 형태 변화나 디자인 변형이 일어날 때의 특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하였다(Table 6).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서즈의 디테일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형태의 아웃웨어 서즈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4년간 컬렉션에 나타난 기존의 서즈 디자인을 분석하여 서즈의 디자인 경향을 정리하여 조형적 특성과 미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서즈의 조형적 특성으로는 먼저 H형 실루엣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었으며 소재는 면소재가 주로 사용되었고 색상은 유채색보다 무채색의 빈도가 높았다. 또한 칼라, 소매, 플레킷, 커프스, 프론트와 같은 디테일에 있어서는 현대의 트렌드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디자인 분석결과 미적 요소로는 과장적 요소, 인체를 중심으로 하는 체형적 요소, 다기능적 요소와 같은 세 가지 요소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류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디자인을 제안할 수 있었다. 먼저 컬렉션에 나타난 과장적 요소의 조형적 특성을 본 작품에서는 여러 겹의 소재 겹침 및 의복 구성요

소 겹침과, 기하학적인 선과 면 분할을 통해 비대칭적 구조의 실루엣을 만들어 과장된 형태를 표현하였다. 또한 칼라의 디테일을 여러 소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칼라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다양한 과장된 형태를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인체에 대한 과장뿐만 아니라 의복 제작 디테일 요소를 활용한 다양한 과장적 형태의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미적 특성인 체형적 요소의 조형적 특성을 본 작품에서는 인체라인의 위치변경과 의복 구성형태 및 디테일의 위치를 변경함으로 기존위치에 변형을 가져오는 표현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체부위에 따른 체형요소 중 굴신체형의 요소를 반영하고, 의복 착용을 위한 구성요소를 구조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나오는 변형을 새로운 디자인의 표현방법으로 적용하였다.

세 번째 미적 특성인 다기능적 요소의 조형적 특징을 본 작품에서 표현한 방법으로는 착용자의 착장방법에 따라 형태 변화를 주어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멀티 스타일링이 가능한 디자인과 여러 가지 목적, 용도, 기능에 따라 아이템 자체의 변형이 가능한 서즈 디자인으로 제안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디자인 방법은 현대 사회의 다중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다양한 요소가 공존하며 양자 간의 피드백을 만족시키는 다기능성의 양식적 특징을 띄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컬렉션에 나타난 서즈의 디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형적 디자인을 제작하여 제시함으로써 서즈에 예술적 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실용성을 더하고자 하였다. 겉옷에 가려져 있던 이너웨어에 대한 이러한 시도는 서브 아이템으로써 평가받아온 서즈 디자인에 고부가가치의 의상으로써의 발전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서즈 디자인의 표현영역 확대를 제시하였다고 판단되며 보다 다양한 서즈 디자인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Bae, J. Y. (2008). *A study on environmentally friendly fashion desig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hoi, J. E. (2015). *A study on transformed look in contemporary fashion: Focusing on cases since 2000*.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 Craik, J. (2001). *The Face of Fashion* (Jeong, I. H., & Ham, Y. J., Trans.). Seoul: Poorunsoop. (Original work published 1993)
- FALL 2011 MENSWEAR Dolce & Gabbana. (2011). *VOGUE*. Retrieved August 12, 2014,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menswear/dolce-gabbana/slideshow/collection#18>
- FALL 2012 READY-TO-WEAR Dries van Noten. (2012). *VOGUE*. Retrieved August 25, 2014,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2-ready-to-wear/dries-van-noten/slideshow/collection#1>
- FALL 2012 READY-TO-WEAR Fendi. (2012). *VOGUE*. Retrieved August 25, 2014,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2-ready-to-wear/fendi/slideshow/collection#27>
- FALL 2013 READY-TO-WEAR Balenciaga. (2013). *VOGUE*. Retrieved August 18, 2014,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3-ready-to-wear/balenciaga/slideshow/collection#5>
- FALL 2013 READY-TO-WEAR Chalayan. (2013). *VOGUE*. Retrieved August 18, 2014,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3-ready-to-wear/chalayan/slideshow/collection#8>
- FALL 2014 READY-TO-WEAR Alexis Mabille. (2014). *VOGUE*. Retrieved 10 October,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alexis-mabille/slideshow/collection#16>
- FALL 2014 READY-TO-WEAR Balenciaga. (2014). *VOGUE*. Retrieved July 15, 2014,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balenciaga/slideshow/collection#23>
- FALL 2014 READY-TO-WEAR Tod's. (2014). *VOGUE*. Retrieved July 20,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5-ready-to-wear/tod-s/slideshow/collection#12>
- Frankie Morello Autumn (Fall) / Winter 2012 men's | 2° parte. (2012, January 15). *COOL CHIC STYLE to dress italian*. Retrieved November 20, 2016, from http://coolechicstyletodressitalian.blogspot.kr/2012/01/frankie-morello-autumn-fall-winter-2012_7203.html
- Han, S. B. (2010). *Characteristics of gender-bending design in contemporary men's dress shir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Hong, Y. J. (2004). 남성용 셔츠를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05, S/S 트렌드에 따른 남성용셔츠 텍스타일 제작을 중심으로 [A study on textile designs for men's shirts: Focusing on textile making for men following to 05 S/S trend]. *The Journal of Design*, 15(-), 1-18.
- Huh, J. S. (2010). A study on the female body's hybrid images expressed in the contemporary fashion.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0(1), 107-119.
- Jeong, H. S. (1989). *근대복식문화사: 1800-1930 서양복식사* [A modern costume culture: 1800-1930 The history of western costume]. Paju: Gyomoon Publishers.
- Kang, N. N. (2009). *Fashion design applying the fusion of sex: Based on formal shirts desig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H. A., & Lee, H. J. (2011). A study on the design image of men's shirts expressed in high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1(1), 20-33.
- Kim, H. Y. (2013). *A study on the shirts design applying the luck physiognomy text of tradition motiv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J. A. (1999). *A Study on the western men's underclothes: From ancient to modern ag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Kim, Y. O., & Ahn, S. K. (2009). *서양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Understanding of western costume for fashion design]. Seoul: Kyungchoonsa.
- Kong, J. H., & Kwon, Y. A. (2013). Effect of stripe pattern for men's shirts on emotion.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16(1), 65-74.
- Kong, M. R. (2004). *패션 도식화* [Flat drawing for fashion]. Seoul: Kyungchoonsa.
- Kwon, S. H., Shin, H. Y., & Lee, I. S. (2015). Study on symbolism of black fashion in sportism fashion of Alexander Wa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5(3), 149-160. doi:10.18652/2015.15.3.10
- Lee, J. H. (2007). *Conception of sexuality and aesthetic values in contemporary men's shir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J. S. (2008). *Pattern design of city image for sensibility 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K. H. (2004). *남성패션디자인* [Men's fashion design]. Paju: Gyomoon Publishers.
- Lim, K. R. (2009, March 3). 신세계, 남성 셔츠 편집매장으로 전환 [Shinsegyl, changeover men's shirts store into a select shop]. *Apparel News*. Retrieved August 27, 2014, from http://www.apparelnews.co.kr/main/inews.php?table=internet_news&query=view&uid=32011
- Lee, M. S. (2011). A case study for development of men's shirts design against global warm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7(4), 399-408.
- Lee, S. J. (2003). *A study on expressed transformation in fashion: Focused on the exagge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 Mantha, C. (2011, February 19). The Petrou Man Fall/Winter 2011 Lookbook is Trippy and Tribal. *TRENDAHUNTER FASHION*. Retrieved August 21, 2014, from <http://www.trendhunter.com/trends/petrou-man-fall-winter-2011>
- Mendes, V. (2003). *20세기 패션* [20th century's fashion] (Kim, J. E., Trans.). Seoul: Sigong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9)
- Milan Fashion Week: Antonio Marras A/W 2014. (2014, January 14). *UomoModerno*. Retrieved July 20, 2016, from <http://uomo-moderno.com/milan-fashion-week-antonio-marras-aw-2014/#prettyPhoto>
- Nam, Y. J., & Lee, H. S. (1996). *남성복 연구* [A study of men's wear]. Seoul: Kyohaksa.
- Oh, H. S. (2000). *SHIRT & BLOUSE*. Seoul: Kyungchoonsa.
- Roetzel, B. (1999). *Gentleman: A timeless fashion*. Cologne: Konemann.
- Shin, H. S. (2003). *현대패션용어사전* [A encyclopedia of contemporary fashion]. Paju: Gyomoon Publishers.
- SPRING 2011 MENSWEAR Neil Barrett. (2011). *VOGUE*. Retrieved August 25, 2014,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1-menswear/neil-barrett/slideshow/collection#20>
- SPRING 2011 READY-TO-WEAR Balenciaga. (2011). *VOGUE*. Retrieved July 23, 2014,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1-ready-to-wear/balenciaga/slideshow/collection#32>
- SPRING 2011 READY-TO-WEAR Celine. (2011). *VOGUE*. Retrieved July 23, 2014,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1-ready-to-wear/celine/slideshow/collection#24>
- SPRING 2011 READY-TO-WEAR Diane von Furstenberg. (2011). *VOGUE*. Retrieved July 24, 2014,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1-ready-to-wear/diane-von-furstenberg/slideshow/collection#10>
- SPRING 2011 READY-TO-WEAR Victor & Rolf. (2011a). *VOGUE*. Retrieved July 11, 2014, from <http://www.com/fashion-shows/spring-2011-ready-to-wear/viktor-rolf/slideshow/collection#5>
- SPRING 2011 READY-TO-WEAR Victor & Rolf. (2011b). *VOGUE*. Retrieved July 11, 2014,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1-ready-to-wear/viktor-rolf/slideshow/collection#35>
- SPRING 2011 READY-TO-WEAR Victor & Rolf. (2011c). *VOGUE*. Retrieved July 11, 2014,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1-ready-to-wear/viktor-rolf/slideshow/collection#1>
- SPRING 2011 READY-TO-WEAR Victor & Rolf. (2011d). *VOGUE*. Retrieved July 11, 2014,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1-ready-to-wear/viktor-rolf/slideshow/collection#38>
- SPRING 2012 MENSWEAR Jonathan Saunders. (2012). *VOGUE*. Retrieved July 14, 2014,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2-menswear/jonathan-saunders/slideshow/collection#4>
- SPRING 2012 READY-TO-WEAR Dior Homme. (2012). *VOGUE*. Retrieved July 23, 2014,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2-menswear/dior-homme/slideshow/collection#25>
- SPRING 2012 READY-TO-WEAR Reed Krakoff. (2012). *VOGUE*. Retrieved August 25, 2014,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2-ready-to-wear/reed-krakoff/slideshow/collection#15>
- SPRING 2013 READY-TO-WEAR Chalayan. (2013a). *VOGUE*. Retrieved August 3, 2014,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3-ready-to-wear/chalayan/slideshow/collection#5>
- SPRING 2013 READY-TO-WEAR Chalayan. (2013b). *VOGUE*. Retrieved August 3, 2014,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3-ready-to-wear/chalayan/slideshow/collection#6>
- SPRING 2013 READY-TO-WEAR 3.1 Philip Lim. (2013). *VOGUE*. Retrieved September 12, 2014,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3-ready-to-wear/3-1-phillip-lim/slideshow/collection#45>
- SPRING 2014 MENSWEAR Costume National. (2014). *VOGUE*. Retrieved July 25, 2014,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4-menswear/costume-national/slideshow/collection#7>
- SPRING 2014 READY-TO-WEAR Yohji Yamamoto. (2014). *VOGUE*. Retrieved July 15, 2014,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4-ready-to-wear/yohji-yamamoto/slideshow/collection#46>
- SPRING 2014 READY-TO-WEAR Sacai. (2014). *VOGUE*. Retrieved August 23,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4-ready-to-wear/sacai/slideshow/collection#18>
- Stefano, A. (2011, January 17). Daniele Alessandrini autunno-inverno 2011-2012/Daniele Alessandrini fall-winter 2011-2012. *S&D Fashion Blog*. Retrieved August 12, 2014, from <http://www.sandfashionblog.com/2011/01/17/daniele-alessandrini-autunno-inverno-2011-2012-daniele-alessandrini-fall-winter-2011-2012-3>
- Yarwood, D. (1986).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New York: Bonanza.
- Yoon, J. A. (2016). The development of fashion design applying transformable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6(3), 99-119. doi:10.18652/2016.16.3.7
- Yoon, J. W. (2013). *The development of tight fit torso patterns with body type of women by 3D body scan data: Using the virtual appearance evalu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2014 Spring Ready-to-Wear London Palmer-Harding. (2014). *WWD*. Retrieved July 20, 2014, from <http://wwd.com/fashion-news/shows-reviews/gallery/palmer-harding-rtw-spring-2014/#!19/palmer-harding-rtw-spring-2014-7158882-portrait>

A Study on Design Development Using Shirts Detail

- Focusing on Aesthetic Features -

Han, Sung Hyun · Kim, Kyung A⁺

Master,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Kookmi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won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propose shirts designs focused on shirts' construction as sub-item which was limited to inner-wear. In order to do this, consideration was made on shirts, and a new shirts design category with formative structure that also coincides with a modern trend based on analysis on trend of contemporary shirts design. The characteristics of shirt design shown in collection, deducted from this study result were classified into formative characteristics based on constructive feature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based on aesthetic feature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ormative characteristic was subdivided into construction factors and in aesthetic characteristics, that is divided as exaggerating shape, reconstitution of body type and multi-functional element, and these characteristics allowed to define the directions for shirts design. The first category is the exaggeration of shape expressed by making asymmetric overlap and using various materials. And the designs of reconstitution of body type was made by changing of values on body, and this category of the shirts division is the shape of human body expressed with emphasis. And the last category for the designs was expressed as a type multi-functional design. It means that one costume can be changed according to many purposes and functions. And these design development contained recent fashion factors using shirts constructive elements of formative characteristics to make new shirts design following to design categories. And this kind of element was shown as multi styling design that can be used in various styles by changing shape by how user uses it. As a result, these suggested shirts designs show practical new shirts design involved in a recent fashion trend. So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ursued a new direction for design by producing and suggesting formative design based on analysis of shirt designs.

Key words : shirts, shirts construction,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hirts,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shirts design